

1부 / 오전 7:30

인도 : 김바울 목사

2부 / 오전 9:30

인도 : 김도완 목사

3부 / 오전 11:30

인도 : 백요한 목사

* 기원	시편 62:1-2	인도자
* 찬송	44장 지난 이레 동안에	다같이
* 교독	34번 시편 81편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다같이
기도	1부: 김준호 집사 2부: 하상환 장로 3부: 반기섭 장로	
* 성경	시편 81:1-4 (구약 862)	인도자
찬양	1부: 호산나 2부: 아멘 3부: 할렐루야	
설교	“ 우리의 명절 ”	김수환 목사
람원소식		인도자
*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 축도		김수환 목사
다음주 기도	1부: 권오성 집사 2부: 김종명 장로 3부: 이규석 장로	

4부 예배 (청년) 오후 1:30		인도 : 김도완 목사
찬양		다같이
기도		조용원 자매
성경	느헤미야 13:15-18 (구약 747)	인도자
찬양		시온
설교	“ 주일이 주일하게 ”	김도완 목사
다음주 기도	정하격 집사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 5:30	저녁 8:45
말씀: 역대하	찬양 : 마하나임 찬양팀 말씀 : 김수환 목사

주 일 저녁 예배	
저녁 7:00	인도 : 김도완 목사
찬송	182, 310
기도	유응열 집사
성경	고린도후서 9:8 (신약 295)
찬양	엘림
설교	“ 넘치게 하는 넘침 ”
찬송	320
축도	인도자
다음주 기도	송남영 집사

수 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인도 : 김바울 목사
찬송	35, 272
기도	홍현숙 권사
성경	스가랴 3:1-5 (신약 1314)
찬양	아가페
설교	“ 천상의 법정 ”
찬송	268
축도	인도자
다음주 기도	손봉자 권사

10월의 봉사	
예배위원	김재동, 김진배, 김영호 주일저녁 : 이한규, 마병국, 이봉중, 소병일
경조위원	이규석, 손종목, 임경구, 김재동, 박희순
안내봉사	1부 주보 : 임혜숙 승강기 : 이남례 2부 주보 : 박영옥 김옥진 승강기 : 성춘자 2층 : 노석순, 박연숙 3층 : 박근복 3부 주보 : 김용복 이순례 승강기 : 전명옥 2층 : 조연숙, 이혜자 3층 : 정혜순
교회봉사	토요청소 10/4 13, 14 지역 10/11 대청소 10/18 15, 16 지역 10/25 교역자 주일점심 10/5 2 지역 10/12 3 지역 10/19 4 지역 10/26 5 지역

람원소식	
새생명 전도운동	♣️ 작정한 새생명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초대합니다. - 대장간 전도(3) : 10월 18일(토) / 오전 10시 / 금호어울림 / 총남전도회 주관

1. 예배 안내
 - 예배 후 천천히 질서있게 이동하여 주시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안전을 위해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새가족
 -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당입구 옆, 전도 플랫폼에서 잠시 만남을 갖겠습니다.
3. 모임
 - 로이스 여전도회(50~54년생) 월례회 : 10월 12일(주) / 오후 12시 50분 / 가족예배실
4. 추석 명절 안내
 -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추석 연휴인 관계로 식사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 가족, 이웃과 함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5.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
 - 일시 : 10월 11일(토) / 오전 9시 / 교회 전 시설물
 - 대상 : 모든 기관(남·여전도회, 청년교구, 중·고등부, 교역자)
 - 식사 : 김밥, 어묵 제공(지하 식당, 총여전도회 준비)
 - * 대청소 담당구역 및 청소 내역은 교회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소망부실·기도처·소예배실 공사 완공 감사예배
 - 10월 11일(토) / 오후 1시 / 소망부실
 - * 소망부실 개신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봉사와 기도로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기쁨의 한걸음 가을잔치(새생명 초청)
 - 일시 : 10월 25일(토) / 오전 10:30
 - 장소 : 본당, 1주차장
 - * 작정한 새생명에게 초청장을 전달하여 가을잔치에 초대해주시길 바랍니다.
8. 교인동정
 - 소천 : 이순희2 권사 본인 / 이예자 권사(김용대 집사)의 친모

새가족·환우	
새가족	• 090 - 송하영 / 이혜영 인도
환우	• 이원숙 집사 (더서밋재활요양병원) • 김기웅 집사 (마음편한요양원) • 김영순(집사) (까치울요양원) • 김금자 권사 (큰나무요양병원) • 조남조 집사 (큰나무병원) • 전미경 권사 (신촌세브란스) • 진선정 집사 (자택) • 장영숙 집사 (자택) • 정봉명 집사 (자택) • 이숙자 권사 (자택) • 전복동 집사 (자택) • 오대영 집사 (자택) • 김윤수 집사 (자택) • 윤선미 성도 (자택) • 양정인 집사 (자택) • 박현정 집사 (자택) • 서창대 장로 (자택) • 김종수 집사 (자택) • 이창수 집사 (자택) • 조석래 장로 (자택)

헌금

십 일 조	강 호(정운숙) 강순봉(김정숙) 구홍립(이영은) 김규영(김명자) 김기택(유윤주) 김동기(오해숙) 김명준(유지연) 김봉기(정미경) 김삼숙(정순옥) 김상우(박형임) 김성진(박윤수) 김세권(박미경) 김수환(정선영) 김재동(이외숙) 김재신(김경화) 김진수(이은정) 김태훈(서성순) 노홍균(이남례) 민정순(유혁신) 박경숙(이은정) 박민우(최윤아) 박병문(심숙경) 박성림(김희경) 박종일(심현숙) 박춘선(이선호) 방인대(이정희) 백요환(사주은) 서윤영(전정호) 손중목(계혜정) 송남영(윤영선) 안종현(최정선) 양대수(정숙희) 유병득(하명숙) 유응열(안현주) 유현상(박미경) 유영수(이영순) 이규석(권효순) 이기권(송경근) 이성천(권남욱) 이성근(배미경) 이한구(박희숙) 장권섭(이금순) 전오열(서향순) 정명희(박규선) 정수영(금창순) 정용목(신언자) 정준희(김은희) 정화순(박재범) 조달현(서경순) 주재훈(황미순) 주진미(김신화) 최석천(김경순) 최영삼(김희영) 최화삼(김은경) 하상환(김명숙) 한명철(박희순) 황상효(박상인) 강명옥 강영자 고효영 김금순 김민정 김보라 김순자3 김영애1 김영희1 김정미 김주영1 김주연 김현정1 김혜숙 노정섭 목영란 문혜민1 박기복 박근복 박미자 박상익 박해자 박향정 백누림 백수연 서경자 서정화 서진희 성시현 송공숙 송민영 송원규 이명희1 이선미 이순영 이영숙 이재우 이점미 이준순 이춘화 이희숙 임영란 정연은 조경옥1 조영옥2 조옥순 조자순 조영준 지연옥 최명자 하영례 한경옥 한금복 한성화 홍숙애 무명3
--------------	---

감 사	강 호(정운숙) 고권우(나여남) 김봉기(정미경) 김재영(이연주) 김진수(이은정) 민정식(김수진) 박기봉(최명희) 박민우(최윤아) 박정수(손봉자) 박창만(장 옥) 박춘선(이선호) 방인대(이정희) 손중목(계혜정) 심중택(김영실) 안병광(김승례) 양대수(정숙희) 연정용(이복단) 유응열(안현주) 윤홍선(권종명) 이기주(심미향) 이상화(한소연) 이영진(박용애) 이창규(이정희) 장권섭(이금순) 장희남(김연숙) 정준희(김은희) 한 진(김효숙) 한동섭(곽경옥) 홍강표(이임자) 황우용(김대하) 고여진 권사우 권영금 김경순1 김광자 김국선 김영길3 김영애1 김정미 김지호 김하은 김하준 김행자 문선호 문승주 박 현 박가은 박기복 박미자 박수윤 박우립 박주진 박지혜 박해자 박향정 서경자 서영희 손화옥 송복성 송원규 신근선 연성숙 오혜선 유순자 윤선미 이 산 이규호 이명희1 이세종 이숙희 이시은 이영숙 이영순2 이은아 이인식 이점이 이준순 이춘순 이학순 이현숙2 이효숙1 이효신 이희숙 임영란 임재현 장태정 전남성 전우혁 전찬혁 정여원 정연은 정영희 정철형 조경옥1 조영옥2 조옥순 조자순 주미희 최영훈 최필순 하영례 무명35
------------	---

선 교	김바울(임미경) 김봉기(정미경) 김재동(이외숙) 방인대(이정희)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엄규환(김명원) 장권섭(이금순) 최영삼(김희영) 김애훈 박미자 박세영 박재자 서경순 서진희 송원규 이점미 조경옥1 지연옥 한성화 홍숙애 홍예란 무명2
------------	---

장 학	강 호(정운숙) 김재동(이외숙)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김혜숙 홍숙애
------------	---

구 제	강 호(정운숙) 서상윤(이상희)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이성근(배미경) 장권섭(이금순) 주재훈(황미순) 김금순 김미화 김혜숙 박미자
------------	--

건 축	김혜숙 박미자 박향정 서진희 무명1
------------	---------------------

구역에 배현황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1	김현순1	4	17	신연자	5	33	서향순	4	49	이혜자1	6	65	김진경	4
2	이만희	2	18	이임자	6	34	김혜정	3	50	이태숙	7	66	이은영1	4
3	박연숙	2	19	최외숙	3	35	이영순1	4	51	강경숙2	2	67	최유정	6
4	박원미	2	20	김봉순	2	36	김승례	3	52	정미경	6	68	이점이	6
5	이월희	4	21	김미정1	3	37	김은경1	2	53	김남자	4	69	김옥진	4
6	정영희	4	22	이순례1	0	38	정경화	2	54	이영숙	6	70	임혜숙	0
7	계혜정	4	23	서윤영	3	39	이선호	4	55	권혁화	3	71	최봉덕	3
8	최미경	4	24	천명애	3	40	김은배	3	56	박동숙	3	72	양정자	3
9	고윤자	3	25	김명숙1	2	41	곽경옥	1	57	김명원	7	73	윤현구	7
10	고종신	3	26	전기옥	3	42	강경숙1	2	58	김완숙	2	74	이영순2	2
11	이양자	2	27	김계숙	0	43	박희순	3	59	김경복	3	75	이문순	6
12	장보균	2	28	김옥아	1	44	유윤수	4	60	양희선	3	76	김명자2	6
13	김희경	4	29	이남례	2	45	장정숙	4	61	김선화1	7	77	김은숙1	2
14	김용복	4	30	박근복	3	46	최명희	3	62	김명자1	6	78	윤영선	3
15	백인주	3	31	채은기	2	47	박용애	3	63	이연주	4	79	홍현숙	3
16	윤정희1	2	32	목영란	5	48	김동선	2	64	김미영	3	80	황순희1	3

지난 주일 통계

장 년 : 867명(현장), 100명(온라인) **청 년** : 83명 **교회학교** : 224명 **헌 금** : 41,631,150

기도, 물질,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선 파 협 력	송	• 박남호·최혜정 (인도네시아/ 5남전도회, 다비다)			
	력	• 이시몬 (튀르키예/ 3남전도회) • 강남휘 (인도/ 6남전도회) • 류옥순 (W국/ 마리아) • 심바를 (베트남/ 뭇)			
		• 박희원 (캄보디아/ 4남전도회) • 이용모 (나미비아/ 2남전도회) • 이규준 (캐나다/ 마르타)			
		• 박선진 (태국/ 로이스) • 박윤수 (페루/ 8남전도회) • 정귀하 (A국/ 7남전도회)			
사 일 경	반	• 한승현·강유나 (말레이시아)			
	기	• 한빛 (용인 김병태 목사 / 리브가) • 이삭 (남양주 박한용 목사 / 리브가)			
		• 말씀의 샘 (안성 남이환 목사 / 마르타) • 하이사랑교회 (광주 송대근 목사 / 마리아)			
		• 그말씀의 (수원 정일국 목사 / 로이스)			
제 교 회	원	• 안양새로남 (안양 박성우 목사 / 리브가) • 안양샘병원 (안양 김성은 목사 / 에스더)			
		• 주안익 (광주 조용흠 목사 / 한나)			
	천	• 정귀야향 (인천 김상민 목사 / 사라)			
	강	원	• 산계 (강릉 나중수 목사 / 9남전도회) • 소망 (양구 하용관 목사 / 로이스)		
충 청	청	• 동점 (괴산 권혁인 목사 / 2남전도회) • 금암 (옥천 장재수 목사 / 사라)			
		• 원동 (옥천 김사무엘 목사 / 다비다)			
	전	라	• 마지 (완주 이장수 목사 / 한나) • 동강중앙 (나주 우재경 목사 / 에스더)		
		• 쌍지 (순천 박광현 목사 / 6남전도회) • 신기 (완도 / 에스더)			
경 상	상	• 흥농은혜 (영광 최태승 목사 / 한나)			
		• 세간 (의령 김진홍 목사) / 4남전도회) • 가조반식 (거창 허경주 전도사 / 로이스)			
		• 비전도 (통영 이주태 목사 / 뭇) • 영광스러운 (거제 이천주 목사 / 5남전도회)			
		• 칠성 (청도 박상호 목사 / 마리아) • 부천 (문경 김병수 목사 / 4남전도회)			
제 주 해 외	주	• 당향포 (고성 진철학 목사 / 2권사회) • 생들 (의성 박충영 목사 / 8남전도회)			
		• 임흥 (구미 이계훈 목사 / 마르타) • 구미 랍원 (구미 이재홍 목사 / 1권사회)			
		• 사송주님의 (양산 서동혁 목사 / 마리아) • 보은 (울산 이정요 목사 / 사라)			
		• 신재주갈릴리 (제주 김덕근 목사 / 뭇) • 서 울 • 물랫동산 (서울 강서 방길사환 목사 / 2권사회)			
군 교 회 목	외	• 오슬랜드조은 (뉴질랜드 나영균 목사 / 1권사회) • 진리와자유 (서울 양현 김만성 목사 / 사라)			
		• 몬트리올타원 (캐나다 강승희 목사 / 3남전도회)			
	군	목	• 청운들림(세종목사/2권사회) • 경매단(한태훈 목사/4남전도회)		
	교	목	• 독수리(강사수목사/4남전회) • 용진(신은성 목사/사무집사회)		
군 선 교		• 독수리교(박희태 목사/4남전회) • 기드온(성안목사/7남전도회)			
		• 맹호산전(김계슬 목사/리브가)			
		• 교남소망의집(9남전도회) • 성남보육원(8남전도회)			
		• 국제기아대책기구(7남전도회) • 밀알교회(4남전도회)			
		• 결연경로당 • 한국기드온협회 • 더불어숲직업재활센터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 사	김수환 shksyji@gmail.com 백요한 johnbaek57@gmail.com	오문식 oanstrl@nate.com 김도완 dwkim0710@gmail.com	김바울 kbu1826@gmail.com
전 도 사	서은희 ksjsysy@naver.com	김혜숙 gongone21@daum.net	최선미 sunmi9013@hanmail.net
교육목사	김정훈 sfc-ants@hanmail.net		
교 육 전 도 사	김도현 ehgusaortm@naver.com 김지희 podonamu1981@naver.com 나혜옥 nahyeook@naver.com	이희선 ced3575@naver.com 박영신 2246416@hanmail.net	박솔빈 solveen@naver.com 이요한 ystech77@naver.com
협동목사	이항인 jsotlee92@naver.com		
장 로	[사무] 이규석 이화행 임정구 박희순 손중목 김세권 박기봉 하상환 김근석 김종명 김재동 김진배 김영희 반기섭 [원로] 마외출 엄규환 전용부 서상용 방인대 강 호 [은퇴] 김석종 문 홍 유인만 서창대 정희남 서문웅 박제인 연정용 조용옥 조성준 이기훈 박정수 김삼숙 박규빈 이영진 이희홍 황상효 강 권 김봉기		
지 휘	이예자 김신화 김진수 박영신 김종인 김지현		
반 주	김영길 이병서 이한구 정하경 김윤정 김태희 김세미 허은빈 문혜민 이은영 김주원 배예빈 김사란 김소리 정현지 조은길 유진성 선 휘		

모임안내

장 년 모 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오전 5:30		
주 일 1부 예 배: (주) 오전 07:30	주일 2부예배: (주) 오전 09:30	주일 3부예배: (주) 오전 11:30
주일 4부(청년)예배: (주) 오후 01:30	주일저녁예배: (주) 저녁 07:00	
수 요 저 녀 예 배: (수) 저녁 07:30	금 요 기 도 회: (금) 저녁 08:45	구 역 장 모 임: (금) 오전 09:40
람 원 성 경 강 좌: (목) 오전 10:00	늘 푸른 학 교: (화) 오전 10:30	L . T . C : (화) 오전 10:00

교 회 학 교

영아부: (주) 오전 11:30 영아부실	유아부: (주) 오전 11:30 유아부실	유치부: (주) 오전 11:30 유치부실
유년부: (주) 오전 11:30 유년부실	초등부: (주) 오전 11:30 초등부실	소망부: (주) 오전 09:30 소망부실
중등부: (주) 오전 11:00 중등부실	고등부: (주) 오전 11:00 고등부실	

통권 53권 40호
2025.10.05.

상한 심령(시51:17)

시51편은 다윗의 깊은 회개를 담은 시입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 다윗의 범죄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곧 바로 죄를 인정합니다. 권력으로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었으나,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 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2. 죄를 처리하는 방법

회개의 출발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죄, 나의 죄악”이라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1-3절) 죄는 본질상 은폐가 불가능하며, 감추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정직한 고백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고 자신에게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제물보다 죄로 인해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이 더 중요합니다. 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순간 그 죄의 지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3.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10절)라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수양이나 반복된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죄를 아파할 때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